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Academic Achievement :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안혜령(Hye Ryung An)¹⁾

이순형(Soon Hyung Yi)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MIF) and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GF). Subjects were 78 MIF and 82 GF children recruited from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Academic achievement was determined by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ir teachers; intelligence was measured with standardized intelligence tests.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and ANCOVA. Results showed that (1) academic achievement of MIF children was lower than that of GF children in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and individual subject achievement. (2) The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two groups remained after controlling for intelligence.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 the urgent need for supportive policy to enhanc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IF children.

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지능 (intelligence).

I. 서 론

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이제 전혀 낮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 통계청의 혼인통계(2006)에 따르면, 총 혼인의 약 1/10 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부적응과 더불어 한국어가 서투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

¹⁾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

²⁾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ye Ryung An,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cutty830@snu.ac.kr

동들의 언어 발달 지체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아동의 언어능력 지체는 학업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어휘력이 취학초기 학업성취와 .55에서 .58의 상관을 보이며, 학교에서 심각한 학습문제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어휘력이나 언어이해력과 같이 언어와 관련된 능력에서 상대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Hallahan, Kaufmann, & Lloyd, 1999; Kastner, Raggio, & May, 2000)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최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문제가 밝혀졌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취학자녀 중 11.5%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07). 일상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의 부족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듯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오성배, 2005).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¹⁾은 잠재적 학습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아동들의 학습 부진 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습 부진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소수자 신분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정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따돌림이나 차별경험 유무와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학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시기에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그런데 미국의 인종과 교육의 논쟁에서 보듯, 아동의 학업성취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

1)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속한다(보건복지부, 2005).

이 지능이다. 지능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으로서(Neisser, 1979; Sternberg & Detterman, 1986), 학업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력도 상당히 높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지능지수와 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대략 .50 정도이며, 성적에 대한 지능지수의 설명력은 25% 정도이다(송인섭·나장함, 2006; Neisser, Boodoo, Bouchard, Boykin, Brody, Ceci, Halpern, Loehlin, Perloff, Sternberg, & Urbina, 1996).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기 위해 지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타고난 지적 능력과 성취 환경의 영향을 세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학업 지체에 대한 원인을 지적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로부터 지능에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덮어둔 채 논의를 하면 이는 곧 인종논쟁처럼 지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학업 지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능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학업적인 지체가 나타난다면 이는 선천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 결핍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는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간의 학업성취의 유의한 차이가 유지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3학년 이상 초등학생 78명과 일반 가정의 3학년 이상 초등학생 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도 소재 25개 군 교육청과 전라도 소재

18개 군 교육청에 전화 의뢰하여 2007년 현재 전교생 중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수가 많은 초등학교를 추천받은 후, 각 학교장의 허락을 얻은 총 13개 초등학교(충청남도 3개교, 충청북도 4개교, 전라남도 3개교, 전라북도 3개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을 표집했다. 일반아동은 성별 및 연령 효과, 지역특성 및 학교환경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변수	구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일반 가정 아동
		빈도(%)	빈도(%)
성별	남	31(39.7)	37(45.1)
	여	47(60.3)	45(54.9)
학년	3학년	21(26.9)	26(31.7)
	4학년	30(38.5)	29(35.4)
	5학년	13(16.7)	14(17.1)
	6학년	14(17.9)	13(15.9)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14.1)	4(4.9)
	중학교 졸업	25(32.1)	6(7.3)
	고등학교 졸업	34(43.6)	39(47.6)
	전문대 졸업	0(0)	0(0)
	대학교 졸업 이상	8(10.3)	33(40.2)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0)	1(1.2)
	중학교 졸업	13(16.7)	10(12.2)
	고등학교 졸업	43(55.1)	44(53.7)
	전문대 졸업	5(6.4)	2(2.4)
	대학교 졸업 이상	17(21.8)	25(30.5)
아버지 직업	무직	0(0)	1(1.2)
	생산·노동직	64(82.0)	33(40.2)
	판매·서비스직	5(6.4)	13(15.9)
	사무·관리직	8(10.3)	24(29.2)
	전문·기술직	0(0)	9(10.9)
	기타	1(1.3)	2(2.4)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31(39.7)	33(40.2)
	생산·노동직	37(47.4)	20(24.4)
	판매·서비스직	0(0)	4(4.9)
	사무·관리직	9(11.5)	22(26.8)
	전문·기술직	1(1.3)	3(3.7)
	기타	0(0)	0(0)

<표 2>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어머니출신국가

변수	구분	빈도(%)
어머니출신국가	중국(韓民族)	28(35.9)
	중국(漢民族)	3(3.8)
	일본	37(47.4)
	필리핀	7(9.0)
	기타	3(3.8)

동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한국인 어머니를 둔 동성 친구 한 명씩으로 짝을 지어 표집했다. 총 표집대상이었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96명, 일반 가정 아동 96명, 총 192명 가운데 교사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가 모두 수합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78명, 일반 가정 아동 82명, 총 160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표 2>와 같다.

2. 연구도구

1) 학업성취

아동의 학업성취는 2007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시험성적 백분율(%)을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여 평균을 낸 점수를 사용했다. 시험성적 백분율은 교사의 보고로 정보를 얻었다. 각 과목의 시험성적 백분율이 상위 80% 미만은 1점, 상위 60% 미만~80% 이상은 2점, 상위 40% 미만~60% 이상은 3점, 상위 20% 미만~40% 이상은 4점, 상위 20% 이상은 5점으로 척도화 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학업성취가 높다.

2) 지능

아동의 지능은 Thurstone(1938)의 지능의 다요인설을 바탕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제작

한 지능검사(KIT-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지능검사는 어휘력(비슷한 말 15문항/문장완성 15문항), 추리력(언어추리 15문항/도형추리 15문항), 수리력(20문항), 지각력(20문항) 등 네 개의 하위영역(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 선다형이다. 3~4학년용과 5~6학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평균 39분 정도이다. 각 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는 어휘력이 .87~.88, 추리력이 .83, 수리력이 .80~.86, 지각력이 .80~.8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19일 사이에 해당 학교 13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을 도서실이나 특기적성실 등의 공간으로 모두 소집한 후, 지능검사(40분가량 소요) 시간을 가졌다. 교사용 질문지는 학년 주임교사를 통해 전달했으며, 각 학교에서 수거된 교사용 질문지는 우편을 통해 조사자에게 송부되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수거된 아동의 지능검사지 응답은 검사자가 직접 OMR 카드에 기입한 후 현재 KIT-e 지능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이진로로 전달하였으며, 컴퓨터 처리된 각 아동의 개별 지능검사 결과표를 제공받아 그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성별 및 집단, 학년 및 집단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각각 실시하였고, 지능을 통제된 후 집단 간의 학업성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변

<표 3> 성, 학년 및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의 전반적 경향

범주	성별		학년				집단		평균
	남자	여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일반 가정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학업성취	3.60 (1.21)	3.71 (1.10)	3.66 (1.07)	3.75 (1.07)	3.36 (1.47)	3.79 (1.08)	3.29 (1.09)	4.02 (1.09)	3.66 (1.15)
국어	3.60 (1.33)	3.80 (1.16)	3.79 (1.14)	3.69 (1.18)	3.41 (1.58)	3.96 (1.13)	3.33 (1.21)	4.09 (1.15)	3.72 (1.23)
수학	3.63 (1.27)	3.58 (1.25)	3.55 (1.23)	3.73 (1.16)	3.37 (1.57)	3.63 (1.18)	3.21 (1.20)	3.98 (1.20)	3.60 (1.25)
사회	3.51 (1.22)	3.71 (1.13)	3.64 (1.13)	3.71 (1.05)	3.33 (1.44)	3.70 (1.20)	3.26 (1.07)	3.98 (1.15)	3.63 (1.17)
과학	3.66 (1.31)	3.75 (1.10)	3.66 (1.15)	3.86 (1.07)	3.33 (1.54)	3.85 (1.06)	3.35 (1.20)	4.06 (1.07)	3.71 (1.19)

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및 지능

우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지능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표 3>, <표 4>와 같다.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5>, <표 6>과 같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²⁾. 성별 및 두 집

단에 따른 학업성취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의 주효과는 전체 학업성취 및 모든 과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의 주효과는 전체 학업성취($F=18.62$, $df=1$, $p<.001$) 및 국어($F=16.27$, $df=1$, $p<.001$), 수학($F=16.07$, $df=1$, $p<.001$), 사회($F=17.71$, $df=1$, $p<.001$), 사회($F=16.00$, $df=1$, $p<.001$)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전체 학업성취 평균점수($M=3.29$, $SD=1.09$)는 일반 가정 아동의 전체 학업성취 평균점수($M=4.02$, $SD=1.09$)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국어 평균점수($M=3.33$, $SD=1.21$), 수학 평균점수($M=3.21$, $SD=1.20$), 사회 평균점수($M=3.26$, $SD=$

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일반 가정 아동)을 독립변수로 한 삼원배치 변량분석 대신 성별(남,여), 집단(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일반 가정 아동)을 독립변수로 한 이원변량분석과 학년(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집단(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일반 가정 아동)을 독립변수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의 전체 표집수에 비해 요인의 수가 많아지면 해석상의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성별(남, 여), 학년(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집단(여

<표 4> 성, 학년 및 집단에 따른 지능의 전반적 경향

범주	성별		학년				집단		평균 <i>M</i> (<i>SD</i>)
	남자	여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일반 가정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지능지수	112.12 (16.70)	108.62 (13.76)	111.45 (15.78)	110.34 (15.20)	110.96 (15.54)	106.41 (13.57)	106.51 (12.94)	113.52 (16.31)	110.11 (15.13)
어휘력	55.65 (9.77)	54.10 (9.64)	55.43 (10.57)	54.44 (9.27)	56.19 (10.13)	52.85 (8.70)	52.00 (8.79)	57.38 (9.84)	54.76 (9.69)
추리력	57.65 (9.29)	56.35 (8.19)	57.91 (9.07)	56.53 (8.46)	58.11 (9.84)	54.74 (6.99)	55.22 (7.75)	58.50 (9.23)	56.90 (8.67)
수리력	56.34 (10.82)	52.28 (10.34)	55.96 (10.97)	53.78 (11.52)	53.30 (9.84)	51.81 (9.08)	51.96 (8.44)	55.95 (12.22)	54.01 (10.70)
지각력	54.59 (10.35)	54.13 (8.61)	53.26 (9.53)	55.73 (8.96)	54.00 (9.18)	53.44 (8.84)	53.44 (9.28)	55.17 (9.41)	54.33 (9.36)

<표 5> 성별 및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 이원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i>F</i>
학업성취	성별	.872	1	.872	.73
	집단	22.222	1	22.222	18.62***
	성별*집단	.122	1	.122	.10
	오차	186.198	156	1.194	
국어	성별	2.298	1	2.298	1.65
	집단	22.682	1	22.682	16.27***
	성별*집단	.005	1	.005	.00
	오차	217.420	156	1.394	
수학	성별	.006	1	.006	.00
	집단	23.351	1	23.351	16.07***
	성별*집단	0.039	1	0.039	0.03
	오차	226.622	156	1.453	
사회	성별	2.198	1	2.198	1.77
	집단	22.026	1	22.026	17.71***
	성별*집단	.702	1	.702	.57
	오차	194.021	156	1.244	
과학	성별	.666	1	.666	.51
	집단	20.869	1	20.869	16.00***
	성별*집단	.185	1	.185	.14
	오차	203.526	156	1.305	

****p*<.001

1.07), 과학 평균점수($M=3.35$, $SD=1.20$)는 일반 가정 아동의 국어 평균점수($M=4.09$, $SD=1.15$), 수학 평균점수($M=3.98$, $SD=1.20$), 사회 평균점수($M=3.98$, $SD=1.15$), 과학 평균점수($M=4.06$, $SD=1.07$)에 비해 각각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성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전체 학업성취 및 모든 과목에서 나타나지 않아 전체 학업성취 및 모든 과목에서 나타난 학업성취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는 성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을 통해 학년 및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를 살펴보면, 학년의 주효과는 전체 학업성취 및 모든 과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의 주효과는 전체 학업성취($F=17.64$, $df=1$, $p<.001$) 및 국어($F=13.73$, $df=1$, $p<.001$), 수

학($F=16.11$, $df=1$, $p<.001$), 사회($F=15.90$, $df=1$, $p<.001$), 과학($F=17.01$, $df=1$, $p<.001$)에서 각각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전체 학업성취 평균점수 및 모든 과목 평균점수에서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표 6>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2. 지능 통제 후, 두 집단 아동의 학업성취 차이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간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계속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7>, <표 8>과 같이 지능을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지능을 통제한 후 교정된 학업성취를 먼저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6> 학년 및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 이원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업성취	학년	3.861	3	1.287	1.08
	집단	21.131	1	21.131	17.64***
	학년*집단	1.335	3	.445	.37
	오차	182.039	152	1.198	
국어	학년	4.753	3	1.584	1.14
	집단	19.099	1	19.099	13.73***
	학년*집단	3.570	3	1.190	.86
	오차	211.467	152	1.191	
수학	학년	3.131	3	1.044	.72
	집단	23.410	1	23.410	16.11***
	학년*집단	2.709	3	.90	.62
	오차	220.870	152	.903	
사회	학년	3.320	3	1.107	.871
	집단	20.204	1	20.204	15.90***
	학년*집단	.431	3	.144	.11
	오차	193.123	152	1.271	
과학	학년	6.707	3	2.236	1.733
	집단	21.940	1	21.940	17.01***
	학년*집단	1.655	3	.552	.43
	오차	196.051	152	1.290	

*** $p<.001$

<표 7> 지능을 통제한 후 교정된 학업성취 점수

범주		집단		전체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일반 가정		
학업성취	교정 전	평균 표준편차	3.29 1.09	4.02 1.09	3.66 1.15
	교정 후	평균 표준오차	3.44 .10	3.88 .10	3.66 .07
국어	교정 전	평균 표준편차	3.33 1.21	4.09 1.15	3.72 1.23
	교정 후	평균 표준오차	3.49 .12	3.94 .11	3.71 .08
수학	교정 전	평균 표준편차	3.21 1.20	3.98 1.20	3.60 1.25
	교정 후	평균 표준오차	3.37 .11	3.82 .11	3.59 .08
사회	교정 전	평균 표준편차	3.26 1.07	3.98 1.15	3.63 1.17
	교정 후	평균 표준오차	3.41 .11	3.83 .10	3.62 .07
과학	교정 전	평균 표준편차	3.35 1.20	4.06 1.07	3.71 1.19
	교정 후	평균 표준오차	3.50 .11	3.92 .11	3.71 .08

<표 8>을 통해 지능을 통제한 후 교정된 학업성취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전체 학업성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9.19$, $df=1$, $p<.0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국어($F=7.77$, $df=1$, $p<.01$), 수학($F=7.70$, $df=1$, $p<.01$), 사회($F=7.83$, $df=1$, $p<.01$), 과학($F=7.37$, $df=1$, $p<.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전체 학업성취 및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일반 가정 아동의 전체 학업성취 및 모든 과

목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가 차이가 있는지,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두 집단의 학업성취의 유의한 차이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3학년 이상 초등학생 78명, 일반 가정의 3학년 이상 초등학생 82명 총 1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 및 지능 등을 조사하였다.

<표 8> 지능을 공변량으로 한 학업성취의 공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업성취	지능	64.305	1	64.305	82.17***
	집단	7.193	1	7.193	9.19**
	오차	122.862	157	.783	
국어	지능	62.328	1	62.328	62.17***
	집단	7.785	1	7.785	7.77**
	오차	157.407	157	1.003	
수학	지능	74.517	1	74.517	76.89***
	집단	7.465	1	7.465	7.70**
	오차	152.152	157	.969	
사회	지능	62.056	1	62.056	72.29***
	집단	6.720	1	6.720	7.83**
	오차	134.767	157	.858	
과학	지능	58.850	1	58.850	63.50***
	집단	6.829	1	6.829	7.37**
	오차	145.499	157	.927	

** $p < .01$ *** $p < .001$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는 전체 학업성취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각 교과에서 동일 지역의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다. 두 집단 간의 학업성취의 차이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보다 현저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3학년 이상 초등학생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능을 통제 한 이후에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간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여전히 유지된다. 두 집단의 지능이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결혼이민자 가

정 아동의 평균 지능지수는 백분율 50%를 의미하는 지능지수인 100보다 훨씬 높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지능은 보통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능지수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전체 모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지능이 보통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아동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적 능력 이외에 그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 즉 환경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학업 성취를 도모할만한 경험이나 기회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적었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 여건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가정 내 상호작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환경까지 다를 수 있다

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리함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대도시가 아닌 충청도, 전라도 두 지역에서 임의 표집했다. 연구대상의 특성상 엄격한 의미의 무선 표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 사회 속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 학업성취, 지능과 관련한 이론적 지평을 넓혔다. 소수집단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미국과는 달리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전무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에게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시발 연구로서 이 연구의 가치가 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부적응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이 보통 수준 이상의 지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성별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학업 전반에서 낮은 성취를 보인다는 점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업적 적응이 취약함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공교육 현장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및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생애 초기 언어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유아기에 언어능력 향상 및 인지 보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2005).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 송인섭·나장함(2006). 지능 및 창의성과 학업성취간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15(4), 167-186.
-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통계청(2006). 혼인통계.
- Hallahan, D. P, Kauffman, J. M., & Lloyd, J. W. (1999). *Introduction to learning disabilities*(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Kastner, J., Raggio, D., & May, W.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skills and later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15(8), 787-788.
- Neisser, U. (1979).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 D. K. Detterman (eds.), *Human intelligence, perspectives on its theory and measurement*(pp.179-189). Norwood, NJ : Ablex.
- Neisser, U., Boodoo, G., Bouchard, T. J., Boykin, A. W., Brody, N., Ceci, S. J., Halpern, D. F., Loehlin, J. C., Perloff, R., Sternberg, R. J., & Urbina, S. (1996). Intelligence : Knowns and unknowns. *American Psychologist*, 51(2), 77-101.
- Sternberg, R. J., & Detterman, D. K. (eds.). (1986). *What is intelligence? Contemporary viewpoints on its nature and definition*, Norwood, NJ : Ablex.
- Thurstone, L. L. (1938). *Primary mental abilitie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년 8월 19일 투고, 2008년 10월 23일 수정
2008년 11월 14일 채택